

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6. 15

4~5월 여수신동향 : 2Q 대출증가율 확대 예상

Check Point

- 4~5월 기업대출, 가계대출 동반 확대
- 2Q 대출증가율, 이자이익 개선 예상
- 조달부담 낮게 유지. 하반기 금리인상 감안시 연중 탐라인 성장세 지속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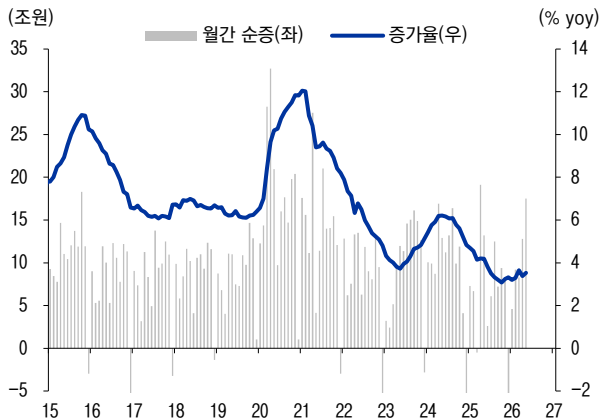
4~5월 대출성장률 확대. 주식투자 확대로 가계대출 급증

- ▶ 5월 예금은행 총대출(정책대출 포함)은 2,590조원으로 4월 대비 17.5조원(0.7%) 증가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3.5% 증가. 4~5월 누적 대출증가율은 1.2%로 1분기의 0.9%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1~3월 중 총대출 순증규모가 22.1조원이었던데 반해 4~5월에는 2개월만에 30조원에 달했음
- ▶ 이는 4월 이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된 결과.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업대출은 약 11조원 증가하며 2개월 간 증가율이 1.5%를 기록.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확대기조가 이어지고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2개월 연속 각각 10조원 이상씩 대출규모가 증가
- ▶ 기업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또한 2분기 들어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음. 1Q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가계대출은 4월 +2.1조원, 5월 +6.9조원을 기록하며 2개월간 0.8% 증가. 5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증가와 중도금 납부수요 등으로 3.2조원 증가하며 4월(+2.7조원)에 이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뿐만 아니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경우 개인의 대규모 주식투자 영향으로 3.7조원 급증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 중 순증규모를 기록함
- ▶ 수신동향을 보면 4월 일시적으로 감소(-6.8조원)했던 은행 총수신이 5월 들어 48.8조원 크게 증가했는데,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 모두 가계자금 유출에도 기업자금 유치가 증가한 영향. 여전히 정기예금 증가율에 비해 결제성예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증시로의 머니무브 현상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금조달 부담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1Q 대비 2Q 이자이익 증가율 확대 예상. 하반기 금리인상으로 탐라인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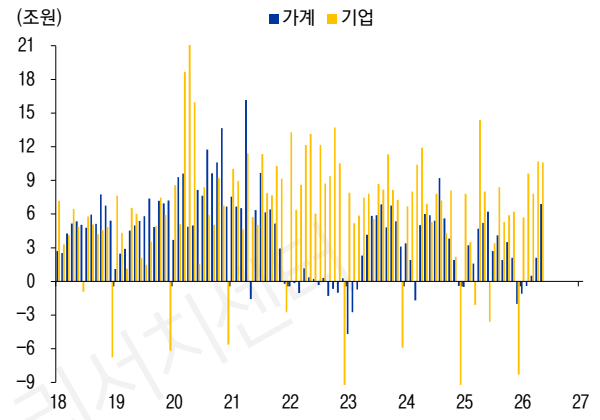
- ▶ 4~5월 대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1분기 대비 2분기 대출증가율 상승이 예상됨. 생산적금융을 위한 적극적 기업대출 취급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증시로의 활발한 개인자금 유입흐름이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어 2Q 대출증가율(정책자금 포함)은 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로 5월에 이어 6월 중순까지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조원에 달하며 고객예수금과 신용잔고가 지속 증가.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 ▶ 수신측면에서 조달부담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있어 2Q 이자이익 전망 또한 긍정적.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이자이익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 또한 하반기 1~2차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NIM 상승추세는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탐라인 성장에 따른 은행권의 이익가시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

그림1 은행권 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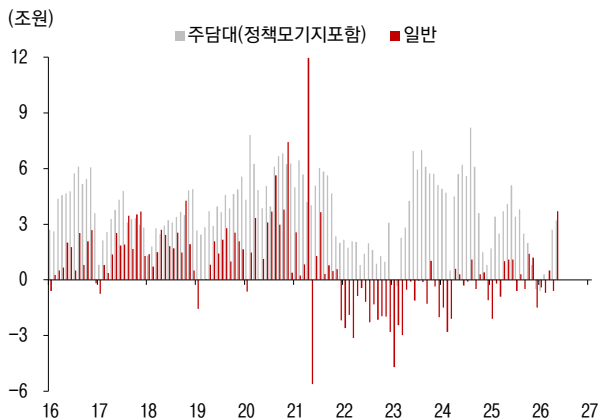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월간 순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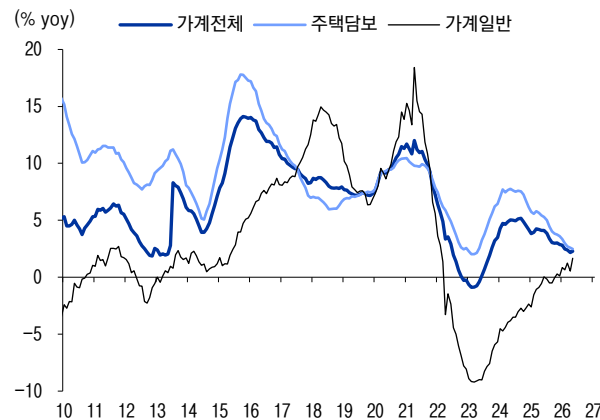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가계대출 부문별 순증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가계대출 부문별 증가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증권사 고객 예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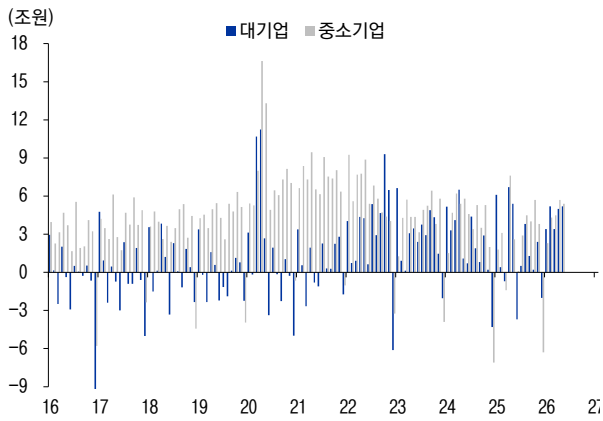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증권사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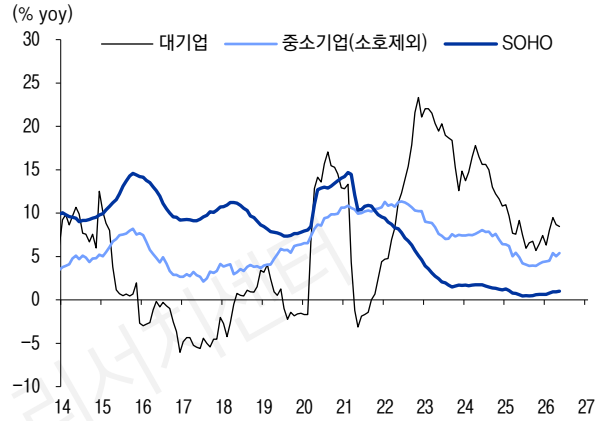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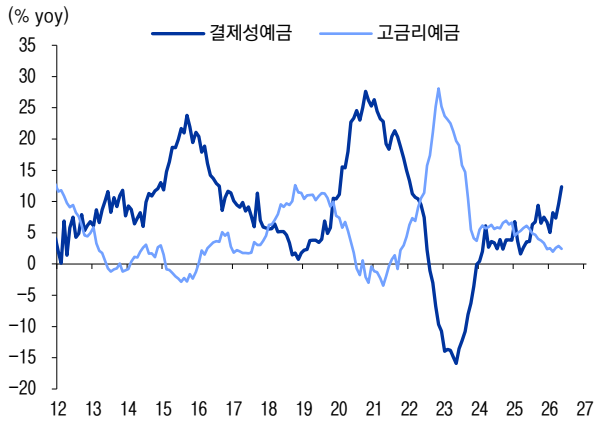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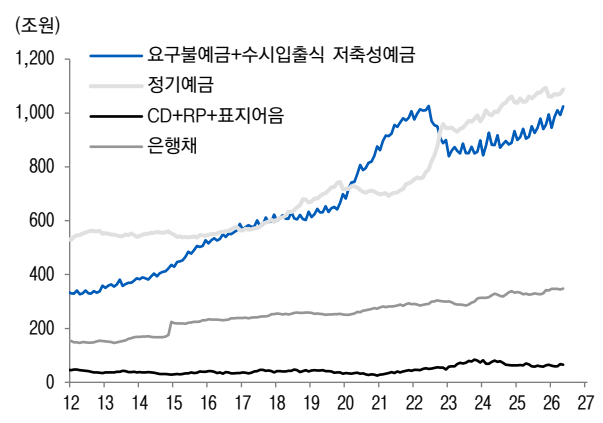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은행권 부문별 수신 증가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은행권 부문별 수신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Hold (보유) Sell (매도)	-15% ~ +15% -15% 이하 기대	10.7%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